

한민족과학기술자교류협력방안

“概要시스템 설치운동 바람직”



徐 聖 基

在英한국과학기술자협회회장
뉴세슬대 연구원

1. 필요성 및 목표

현재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협회가 조직되어 그 활약상이 알려지고있으나, 연구인 개개인간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류와 모든 연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 조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각 연구인의 연구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 활용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일부나마 충족시켜주고자 한다.

개개의 연구인으로서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연구추이를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효용성있는 세부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연구인들과의 중복되는 연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이들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모든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각종 현황 파악과 그들에 대한 관리

가 용이해지며, 전체적으로는 그 결과로서 과학기술인력의 균형잡힌 확보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한국과학기술의 짜임새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있을 것이다.

2. 추진방법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에서는 科總이라 칭함)가 주관이 되어, 연구인들이 속한 단체 즉, 국내의 과학기술관련학회 또는 연구단체(산업체, 대학교, 연구소)그리고 재외 과학기술자협회 또는 연합회(이하에서는 이들을 통털어 단체라 일컫는다)를 만들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연구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연구인들의 반응을 접수·분석하여, 선별된 주제에 대해 논문집발간 및 학술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실질적, 효율적으로 국익에 보탬이 되게 한다.

현대의 사회에서 널리 보급되어 특히 과학기술연구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Computer와 Computer Network를, 자료의 수집·정리·정보화·보급·활용의 전반에 걸쳐서 최대한으로 운용하여 이 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도모한다.

1) '개요' 시스템 설립 절차

科總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재외 과학기술단체들의 현황을 감안하여 분과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각 분과에 속하는 세부 분야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단체에 속한 연구원중 어느 한명도 누락됨이 없이 최소 일개 분과에 속하도록 한다. 각 「단체」는 이에 준하여 분과를 설정하고(혹은 기존의 분과를 이에 상응하도록 재구성하고) 그 분과장을 정한다.

「기관」은 최초 자료수집을 위한 지침-양식, 분량, 서술내용(범위), 빈도수등-을 규정한다. 또한 현재 널리 보급되어 통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중의 소프트웨어중에서 이 사업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이것을 근간으로 「개요」를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세한 사용지침서를 작성한다.

「단체」는 자료 수집을 위한 지침에 부합되고, 「개요시스템」구성에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최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관에 송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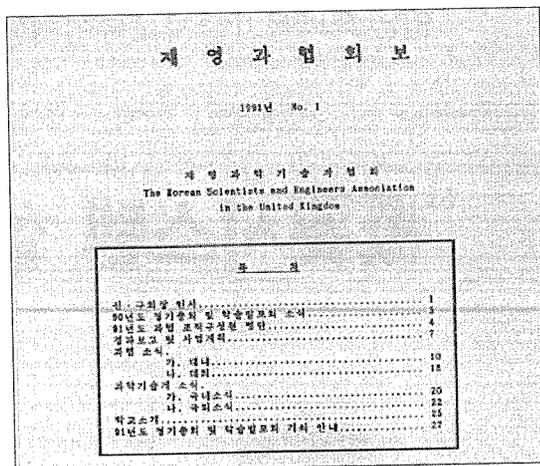
과총은 각 「단체」에서 보내져 온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개요시스템」을 설립한다.

2) '개요'의 보급, 활용 및 관리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 모두로부터 그들의 연구 주제에 대한 간략한 서술을 받아 집성한 「개요」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연구인 개개인에게 빠짐없이 보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개요 시스템」을 상세한 사용지침과 함께 각 「단체」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저장용기에 담아 보급하고 「단체」는 Electronic Mail system 또는 우편을 통하여 각 연구인에게 필요한 만큼씩 배포한다.

과총은 「개요」의 보급 이전에 장차 Feedback을 위한 설문조사양식을 작성하고, 이것을



「개요시스템」의 일부로 포함시켜 각 연구인에게 배포될 정보마다 자동적으로 첨부되게끔 한다. 설문조사의 내용에는 장차 「논문집」과 「학술 강연회」에서 다루어 질 주제의 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인 모두가 스스로 이 설문조사에 응할수 있도록 장치됨이 바람직하다.

각 연구인은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를 「단체」로 부터 입수하여 활용하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논문집과 학술강연회를 위한 주제로서 추천한다.

「단체」는 수집된 설문조사의 답변을 과총에 전달하고 과총은 모든 「단체」로 부터 보내져 온 회신들을 종합하고 또 국내 과학정책의 방향에 비추어 논문집과 학술강연회를 위한 주제들을 선정한다.

과총은 논문모집과 학술강연회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선정된 주제들의 목록과 함께 단체에 통보하고, 단체는 이에 준하여 각 연구인에게 논문발표와 학술강연회 참가를 의뢰한다. 논문집의 발간과 학술강연회 개최에 있어서 각 단체의 분과장들과 과총이 모두 서로 유기적인 관련하에 교류하고 협조하여 분과별로 행사가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간략히 서술한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Electronic Mail을 가능한 모든 경우에

사용함으로써 연구인, 단체, 과총 모두의 행정상의 부하를 극소화하고 신속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전과정을 통한 효율의 최대화를 꾀한다. 즉, 통신을 E-Mail화 함으로써 모든 연락사항이 빠르게 전달되고 컴퓨터 입력시에도 중복되는 작업을 피할수 있으며, Academic Community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전혀 경비가 들지 않는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시간, 공간,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서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며, 「개요시스템」이 구성된 이후에는 연중 수시로, 새로 시작되는 연구주제와 완료된 연구주제에 대한 소식이 접수되므로 과총은 항상 최신의 자료로 보정된 전세계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의 현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요는 최소한 연 2회씩 단체에 배포되어 연구인 모두에 의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Mail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 과총은 이 사업을 위한 전용 Address들을 확보해 두어야겠다.

3) 기본자료 수집을 위한 고려사항

이 사업을 추진하여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연구개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최초자료의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개의 연구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외 연구인들 중의 많은 수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의 신분임을 감안할 때 시간·노력·재정 등의 외형적 관점은 물론이고, 학위취득이나 장래 취업문제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상태와 같은 무형적 관점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되겠다. 개개의 연구인들이 개요형성작업에 스스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들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1) 자기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

(2) 자신의 연구능력과 주제에 대한 과시 내지는 광고가 될 수 있다.

(3) 연구비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4) 장차 구직 활동 또는 승진을 위해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국내 연구인들 또한 이미 부과된 일의 하중이 거의 극한에 이르러 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 과총과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연구인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 무리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 주도록 배려해야 겠다.

덧붙여서,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동료 연구인들을 위한 봉사에 바치고 있는 재외 과학기술단체의 임원들에게는 이 사업이 또 하나의 거대한 업무량을 그들에게 부과하게 됨을 잘 인식하여 과총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회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 국내 연구인력의 능력과 재외 연구인력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며 그 자료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연구효율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 연구인들간의 개별적 접촉을 가능케하여 참고자료 입수를 용이하게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 국가적 차원에서 볼때, 복수의 연구인이 중복되는 주제를 다룰 때에 야기되는 연구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도 다른 연구인과의 중복연구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귀중한 시간·노력·재정의 낭비를 막고 또 독보적인 연구분야를 확보하게 된다.

● 국내의 과학기술연구인들의 정확한 현황을 항상 유지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이의 활용도 가능해 진다.